

# 멕시코시티 공립학교, 성 중립적 교복 정책 시행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앞으로 성(性)을 특정하는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성향 여당인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 소속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3일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운 성 중립적 교복 정책을 발표했다.

세인바움 시장은 "여자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남자아이들이 바지를 입어야 했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다고 생각한다."며 "소년이 원한다면 치마를 입을 수 있고 소녀 역시 원하면 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교육부는 세인바움 시장의 발표 이후 낸 트윗에서 새로운 성 중립적 교복 정책은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인바움 시장의 성 중립적 교복 정책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적인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법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부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다.

에스테반 목테수마 교육부 장관은 세인바움 시장의 발표를 높이 평가하며 현재 멕시코의 다른 주들도 이번 정책을 따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소수자 권리 증진 운동가들은 세인바움 시장의 교복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수 있다며 환영했다.

# 지난달 멕시코 국경 불법이민자 13만 명 체포 13년래 최대

지난달 미국의 남쪽 멕시코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미 국경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이민자가 13만2천887명으로 집계됐다.

6일 '연합뉴스'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날 발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월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며, 지난 4월(9만9천304명)에 비교해선 33.8% 증가한 수치다.

멕시코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돼 곧바로 추방된 이민자도 전월(1만170명)보다 소폭 증가한 1만1천39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미국의 멕시코국경에서 체포·구금되거나 추방된 이민자는 지난 3월부터 3달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구금된 이민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WP는 "국경순찰대에 의한 불법 이민자 체포는 2000년에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의 대다수가 멕시코에서 온 성인 남성이어서 곧바로 추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중미에서 장기간 여행을 해서 온 가족 이민자들이어서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P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체포된 인원의 40%가 부모와 함께 또는 홀로 미국 땅을 찾아온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년 동안 이민자들은 은밀하게 입국을 시도하기보다는 망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경 당국에 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국경경비대 관계자는 "구금된 이민자들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때로는 눅눅도 어려움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당국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외국산 담배 수입 제한" ... "금연정책 일환"

북한이 외국산 담배 수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에서는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가 담배통제법에 준하여 금연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연 강화 정책에 대해 전했다.

북한은 최근 개정된 '담배통제법'에 따라 신규 담배 생산도 중단했다.

북한의 '담배통제법'은 담배 수입금지를 부각하는 등 금연 강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외제 배격'을 주문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들어 당국의 금연정책 홍보에 부쩍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에도 "조선의 금연연구보

급소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연구와 보급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맹회 기관지인 조선신보 역시 지난달 13일 금연연구보급소에서 개발한 금연식품이라며 한방 재료를 넣어 만든 '항경피너삼음료'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어 금연정책에 있어 최고 존엄은 예외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담배를 들고 박수 치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실렸다.

지난달 4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도 김 위원장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쌍안경을 양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 실리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 앞의 책상 위에는 담배갑이 놓여 있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 **상담문의**